



2025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대비

이선화 교육학 모의고사 해설 및 모범답안(5)



※QR코드를 통해 "서울대 정통파 해법 강의" 교육학논술 이선화 교수의 강의 계획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선화 교수 | 박문각 임용 노량진학원

이선화 교육학 모의고사 모범답안

제공: 이선화 교수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교육이 온전히 운영되지 못했던 기간 중 발생한 교육결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짧은 짧은 기간 동안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학습, 심리정서, 신체건강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교육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회의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평가, 교육행정의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회복을 위한 학교의 노력을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과정 영역에서부터 교육회복을 논할 수 있다. A 교사가 언급한 통합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조직하면, 학생 입장에서 여러 가치가 있다.

첫째, 분절적이지 않고 여러 지식이 연관된 형태로 학습을 할 수 있어 여러 지식의 의미와 가치를 깊게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여러 영역의 지식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실적 문제와 연결하기가 쉬워 배운 지식의 실제적 장면으로의 전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교육회복에 도움이 되는 전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실천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행동적 측면 모두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학생의 참여, 경험과 수행을 중시하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의 정서적 측면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공식적 교육과정과 조화를 이루어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학업적 측면과 정서적, 행동적 측면의 고른 회복을 위해 교육과정 조직의 측면과 교육과정에서 전인교육을 구현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심리의 관점에서는 학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B 교사가 언급한 사례를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해 보면, '학업에 대해 관심이 없는 동기 상태'는 무동기 상태로 볼 수 있고, 동기 조절 유형은 무조절로 분석할 수 있다. '보상이나 벌 때문에 공부를 하는 동기 상태'는 외재적 동기에 해당하며, 동기 조절 유형은 외적 조절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을 느끼는 학생을 도와줄 수 있는 전략으로는 첫째, 학생 수준에 맞는 개별적 지도나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교사가 직접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동료 학생들의 도움을 활용할 수도 있다.

둘째, 학생 자신의 전반적인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학습 외에도 잘하는 사항들을 찾아서 학습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자칫 학업과 학교 생활 전반에 있어 무기력해질 수 있는 학생들을 도와 교육회복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의 동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교육평가에 있어서도 학생의 여러 측면을 평가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C 교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평가는 진단평가이다.

진단평가에서는 첫째, 학생들이 학습목표의 선수요건이 되는 출발행동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수업에서 학습하게 될 교과목표를 미리 달성했는지, 또는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정의적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으로는 첫째, 질문지법을 사용할 수 있다. 질문지법은 자기보고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 작성된 일련의 질문에 대해 피험자가 스스로 대답을 기술하도록 하는 질문지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의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관찰법을 활용할 수 있다. 계획된 관찰을 통해 학

생의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여러 정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학업 회복을 위해 진단평가를 활용하여 학생 상황에 맞는 세심한 지도를 하고, 평소 학생들의 정서적 측면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면 교육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듯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학교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교사들은 학교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D 교사가 언급한 학교 조직 유형은 이완결합체제로 볼 수 있다. 하위 부서들이 서로 관련은 되어 있지만, 각자가 자주성과 개별성을 유지하며 어느 정도는 분리되어 있는 조직은 이완결합체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완결합체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교사의 업무 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성에 기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자유재량권과 결정권이 있으므로 그러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있어 전문성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

둘째, 상호신뢰에 기반한 업무 태도를 가져야 한다. 행정관리 및 동료 교사, 학생들을 대함에 있어 상호신뢰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이완결합체제로서의 학교 특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로 교육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이를 학교가 지원한다면, 더욱 빠르게 교육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교육회복을 위한 학교의 노력을 주제로 먼저 통합성을 고려한 교육내용 조직의 가치와 전인교육 구현 방안,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동기 분석,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개입 전략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진단평가와 정의적 영역의 평가 방안 및 이완결합체제 속에서의 교사의 태도를 확인하였다.

성장하는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학교와 우리 교육 전체가 교육회복을 위해 여러 부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 정통파 해법 강의

교육학 논술 이선화



24년 3~11월 [직영상] 패키지

개강 3월4일(월) | 시간 [월화] 09:00~13:30

24년 [직영상] 3~4월 심화이론 및 활용반

개강 3월4일(월) | 시간 [월화] 09:00~13:30

24년 직강 5~6월 기출사례 연습반

개강 5월6일(월) | 시간 [월화] 09:00~13:30

3-11월 강의